

미국사회의 종교 지형의 변화: ‘영적 믿음’(spirituality)을 중심으로*

이 현 송

차 례

- I. ‘종교적 믿음’과 ‘영적 믿음’의 비교
- II. ‘영적 믿음’의 확대 원인
- III. ‘영적 믿음’과 종교의 사유화
- IV. ‘영적 믿음’의 대상과 내용
- V. 영적 믿음 추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과 사회적 태도
- VI. ‘영적 믿음’의 불안정성
 - 1) 믿음의 제도화의 거부
 - 2) 믿음의 사회적 영향
 - 3) 내적 일관성의 결여
 - 4) 믿음의 강도가 약함
 - 5) 믿음의 획득과 전승의 불연속
- VII. ‘영적 믿음’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제이차 세계대전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인의 종교성은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1950년대에 최고조에 달한 미국 사회에 대한 기독교 교회의 지배력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Wuthnow, 1988). 일부 복음주의 계열 교회를 예외로 한다면 개신교 주류 교회(Mainline Churches)의 신자 수는 근래로 오면서 현저히 감소하였다. 여론조사에서 교회와 성직자를 신뢰할만한 기관으로 지적하는 사람의 수는 갈수록 줄어든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에 헌신하는 신자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여 미국인의 신앙심이 약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KRF-B00382)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미국인의 92%가 신을 믿으며, 74%가 천국을 믿고 있으며, 75%가 적어도 일주에 한번 이상 기도를 하며, 39%는 한 주에 한번 이상 교회에 나가며, 56%가 종교는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ew Forum, 2010). 근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미국인의 이러한 높은 신앙심은 20세기 중반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며, 20세기 후반 들어 급속히 세속화의 길을 가고 있는 유럽과 갈수록 격차를 벌이고 있다.

개신교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동안 ‘영적 믿음’(spirituality)으로 포괄되는 새로운 형태의 믿음은 확대되었다(Bainbridge, 2004). 1960년대 이래 다양한 형태의 믿음이 영적 믿음을 표방하면서 영역을 넓혀왔다. 뉴에이지(New Age Movements)로 통칭되는 신앙, 예컨대 동양 종교 계통의 믿음, 아메리카 인디언 계통의 믿음, 자연과 생태를 중시하는 범신론적 믿음, 밀교 내지는 신비주의 계통의 믿음, 등 ‘영적 믿음’을 표방하는 세력은 근래에 많은 추종자를 만들어 내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믿음은 모두 ‘영적이다’(spiritual)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요즘 젊은 미국인의 종교적인 지향을 지칭하는데 ‘영적이다’는 용어를 자주 쓴다(New York Times, 2010.Feb.20). ‘영적인 관심’(spiritual interest), ‘영적 탐색자’(spiritual seeker), ‘영혼의 탐색자’(soul searcher) 등의 용어는 근래 미국인의 종교 성향을 논의하는 글에서 흔히 발견된다. 뉴스위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4%가 자신이 ‘종교적’(religious)이라고 응답하는데 반해 더 많은 사람들(79%)이 자신의 믿음을 ‘영적’이라고 답한다(Adler et al., 2005:46-47). 이들의 생각에서 ‘영적이다’(spiritual)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며 왜 이러한 용어가 근래에 유행할까? 사람들의 생각에 종교적이라는 것과 영적이라는 것은 실제 차이가 있는가? 이 둘 간에 차이가 있다면 ‘종교적 믿음’(religious faith or religiosity)이라는 용어가 지배했던 과거와 비교하여 근래에 ‘영적 믿음’(spiritual faith or spirituality)이 증가하는 것은 미국인의 종교성에 의미 있는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가 혹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한가? 영적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영적인 탐색자’(spiritual seeker)라고 지칭하는데, 이들은 이차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

다(Roof, 1999; Wuthnow, 2007). 이들이 추구하는 믿음은 미국인의 종교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다.

본 연구는 근래 미국의 종교연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비기독교 계통의 '영적 믿음'을 중심으로 미국인의 종교성의 변화를 검토한다.¹⁾ 기독교 전통의 '종교적 믿음'과 구별되는 '영적 믿음'은 무엇이며, 왜 이러한 형태의 믿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미국사회의 종교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비기독교 계통의 영적 믿음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I. '종교적 믿음'과 '영적 믿음'의 비교

'종교적 믿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대체로 합의된 정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믿음'은 기존의 종교 틀에서 제시하는 '신성'(deity)를 향한 헌신적인 추구를 의미한다. 종교적 믿음은 인지적, 행위적, 정서적 측면이라는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Hill and Hood, 1999). 사람들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 어떤 사람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종교적 메시지를 숙지하고 있으나 신의 은총을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깊게 느끼지 않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종교적인 메시지에는 무지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 종교성의 다양한 차원에 관여하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나 무엇이 종교적 믿음의 완벽한 이념형인가 하는 규범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종교적인 사람의 이념형은 종교적인 메시지를 숙지하고 있으며, 기도나 교회 예배 등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참여하며, 일상에서 신의 은총을 느

1) 복음주의 기독교 계통에서도 근래에 '영적 믿음'(spirituality)을 강조하는데, 이들 기독교 계통의 영적 믿음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한다.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에서 언급하는 영적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감정적 열정적 체험의 측면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본 연구의 대상인 비기독교 계통 신앙에서 언급하는 영적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복음주의 기독교의 신앙 생활은 별도의 연구를 요한다. 복음주의 기독교의 영적 믿음에 관하여는 Smith(1998), Balmer(2006) 등을 참조할 것.

끼고 고통에 대해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 사람이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 믿음을 언급하나 이것이 종교적 믿음을 넘어서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 뚜렷하지 않다. 본래 ‘영적이다’(spiritual)는 말은 ‘종교적’(religious) 혹은 ‘성스러운’(sacred) 느낌이나 체험을 표현하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사용되었다(Hill, et al., 2000: 53-54). 그러나 근래에 들어 ‘영적이다’는 용어는 기존의 뜻에 더하여 특정한 뜻을 추가적으로 내포한다. 기존의 종교적인 틀, 특히 전통적인 기독교의 믿음과 권위에서 벗어난 성스러운 것을 지칭할 때 ‘영적이다’는 용어를 흔히 쓴다. 주류 교회(Mainline Churches)의 정례적 의례를 벗어난 맥락에서 성스러움(the sacred)을 경험을 하거나, 기독교의 인격신이 아니라 초자연력을 숭상한다거나, 종교적인 경외의 감정을 느끼지만 기독교의 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에 ‘영적인’ 체험이라고 말한다(Zinnbauer, et al., 1999: 890-892).

한편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개인의 종교적 체험을 특별히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영적이다’는 용어를 쓴다(Smith, 1998). 이 경우 영적 믿음은 종교적 믿음의 다양한 차원 중 경험적 및 정서적 차원에서 종교적 헌신에 초점을 맞출 때 주로 사용한다. ‘신과의 직접적인 대화’, ‘신을 만남’, ‘신의 은총을 경험함’, ‘신이 함께하는 것을 느낌’, 등과 같은 표현을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데, 이는 신과 개인 간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종교적인 체험과 경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 교회가 교리나 교회의 권위에 따르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신자 개개인의 종교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데, 이때 자신들의 믿음을 ‘영적 믿음’, ‘영적인 만남’, ‘영적인 체험’,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차별화하고자 한다.

종교 심리학자들은 ‘영적인’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한 방법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영적이다’라는 용어를 통해서 연상하는 관념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기도 한다. 진바우어(Zinnbauer, et al., 1999: 901-903)의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종교적 믿음과 영적 믿음은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위치해 있다. 첫째 종교적 믿음은 조직적인데 비해 영적 믿음은 개인적이다. 종교는 믿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전통으로 확고히 정해져 있는 조직과 체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영적 믿음은 제도화된 틀을 거부하며 개별적인 접근

과 개인적 체험을 증시한다. 둘째는 종교는 실질적 내용에 비중을 둬에 비해 영적 믿음은 기능적 역할에 중점을 둔다. 종교는 믿음의 체계와 내용 자체를 지키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영적 믿음은 믿음이 신자의 삶 즉 삶의 의미를 찾고, 세계와 합일하고, 자아를 완성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영적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내용 그 자체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둔다. 셋째 종교는 부정적인 연상이 많은 반면 영적인 접근은 긍정적인 연상이 많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서 종교는 직접적인 체험을 넘어서 구조 즉 사제, 교리, 교회, 제도, 권위, 정치적 관여 등과 같이 부정적인 것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²⁾ 반면 영적 믿음은 삶의 의미, 초자연력의 체험, 조화와 합일의 경험, 자아 성찰 등과 같이 긍정적 체험과 연관된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믿음이 전통적이며 권위적인 성격의 것인 반면, 영적 믿음은 개인적이고 삶에 실제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종교적 믿음과 영적 믿음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 사람의 의식을 조사한 또 다른 연구(Marler and Hadaway, 2002)에 따르면 많은 사람에게 종교적 믿음과 영적 믿음은 어느 정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응답자의 3분의 2는(63%) 종교적 믿음과 영적 믿음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분명히 다르다고 응답한 반면, 두 개가 같은 개념이라고 응답하거나(23%) 혹은 두 개가 완전히 독립된 개념이라고 응답한 사람(8%)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영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두 개념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성격은 아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종교성을 연구한 루프(Roof, 1999)의 연구에서도 대다수는 자신이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영적 믿음을 추구한다고 응답한다.³⁾ 일반 사람들에게 종교적 믿음은 조직화된 영적 믿음, 제도화된 영적인 경험 등으로 인식된다. 즉 영적 믿음이 종교

2) 특히 1980년대 교회가 정치의 영역에 권위적으로 간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우트만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 기독교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급증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다 (Houtman and Aupers, 2007).

3) 이들이 지칭하는 영적 믿음에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영적 믿음과 비기독교 계통의 영적 믿음이 혼재되어 있다. 루프는 이들의 의식 속에서 비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이 미분화상태로 있으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한다(Roof, 1999: 35-41).

적 믿음보다 더 큰 범주의 개념인데, 영적 믿음 중에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부분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한정짓는 것이다(Zinnbauer, et al., 1999).

II. ‘영적 믿음’의 확대 원인

종교적 믿음과 영적 믿음은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다. 힐에 따르면(Hill, et al., 2000) 두 가지는 모두 신성한 것(the sacred)에 관한 개념을 포함하며, 두 가지 믿음 모두 신성한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문헌에서 ‘종교적’과 ‘영적’이라는 단어는 서로 구분 없이 함께 쓰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종교적 믿음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부가된 반면 이와 구분되는 긍정적인 의미를 영적 믿음에 새로이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의 뉴에이지 운동이 영적 믿음을 표방한 것 또한 영적 믿음이 종교적 믿음과 구별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종교적 믿음과 영적 믿음이 구별되면서, 초월자와의 개인적 경험을 강조하는 의미가 영적 믿음에 더 부여된 반면, 종교적 믿음은 기독교의 제도적인 틀과 연관된 것으로 부각되었다. 미국에서 제도적인 틀을 강조하는 기독교 전통이 쇠퇴하는 반면 개인의 체험과 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믿음을 허용하는 문화가 근래에 오면서 확대되었는데, 영적 믿음의 증가는 바로 이러한 문화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종교 연구자들은 서구사회에서 영적 믿음이 확대된 현상을 종교에서도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향(de-traditionalization), 종교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 혹은 종교성의 사유화(privatization)경향으로 해석한다(Houtman and Aupers, 2007; Heelas and Woodhead, 2005; Luckman, 1996).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 전통이 부정된 궁극적인 원인은 근대화가 수반한 사회분화(social differentiation)에 있다. 사회분화 명제에 따르면 과거에는 종교 기관이 모든 기능을 미분화 상태로 수행했는데, 점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능이 별도의 제도로 분화되어 나가면서 종교의 영역은 줄어들었다. 각자 분화된 별도의 영역들은 독자적인 제도와 가치판단

과 운영의 원칙을 발전시켰다. 분화하여 독립된 영역에서 통용되는 진리와 선의 판단 기준은 영역들 상호 간에는 물론 종교의 기준과도 어긋나게 되었다. 예컨대 경제의 영역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정치의 영역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판단하는 기준, 가족의 영역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서로 상이하며 종교적 기준과 충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종교는 과거 하나의 의미체계로 사회전체를 도덕적으로 통괄하던 힘을 상실하였으며 대신 여러 다양한 의미체계 중 하나로 전락하였다. 종교적으로 좋은 것이 경제적으로 좋거나 예술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므로 사람들은 영역에 따라 다양한 가치 기준들 사이를 넘나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전통 기독교가 제공하던 의심의 여지없는 유일한 가치 체계가 허물어진 자리에 들어선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각자가 대면하여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어떤 영역이나 기관도 절대적인 가치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치기준의 혼란을 경험하며, 다양한 상대적 가치 기준들 간에 균형을 찾는 것은 각자 개인의 몫이 되었다. 즉 사회 분화는 기독교 전통의 절대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의미의 문제를 각자가 해결해야 하는 종교의 사유화와 개인주의화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이제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자의 결정에 달린 것이기에 종교의 영역에서도 개인을 중심으로 믿음의 내용과 형식이 재편되는 결과를 낳았다(Houtman and Aupers, 2007: 308-309).

개인화된 종교성은 의미의 문제에 관하여 외적인 권위 기관의 해결을 기다리지 않는다. 의미 추구 행위에 대해 새로이 획득한 자유의 행사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맡겨진다. 사람들은 권위적이며 절대적인 외부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은 어떤 것이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자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종교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는 이러한 경향을 '실라이즘'(Shiela-ism)이라는 신조어로 표현하기도 한다(Bella, et al., 1985). 근래에 영적 믿음이 유행하는 현상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문제가 전통이나 외적인 기관의 소관에서 개인의 사적인 결정의 영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영적 믿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을 전통적인 종교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과 함께 탈제도화, 개인주의화, 세

계화 등 거시적인 사회구조 변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Hill, et al., 2000: 70-71).

Ⅲ. '영적 믿음'과 종교의 사유화

미국인의 종교성이 제도적 틀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변천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찍이 종교사회학자인 토마스 루크만(Thomas Luckman)이 1971년 '보이지 않는 종교'(Invisible Religion)라는 제목의 그의 책에서 종교의 사유화 경향을 언급한 이래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루크만은 믿음의 사유화 경향이 영적 믿음 특히 뉴에이지 계열의 믿음에서 뚜렷이 발견된다고 분석한다. 그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Luckman, 1996: 74-76).

과거 신앙 생활이 교회로 대표되는 제도적 틀을 중심으로 하였음에 비해 근래로 오면서 신앙 생활은 점점 사적인 관심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교회 및 성직자에 의해 주도되는 교리의 권위적인 해석이나 의례적 규칙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였다.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방식, 등에서 자신의 기호에 맞는 선택과 조합을 취한다. 개인적인 선호의 영역으로 이전한 종교적 관심에서 형식과 의례는 상대적으로 무시된다. 반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실제 어떠한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지 하는 개인의 내적인 것이 중심으로 자리잡는다. 사람들은 종교 체험이 자신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언제라도 믿음의 대상, 내용, 방식을 바꾸는 데 거리낌이 없다. 영적 믿음을 쫓는 사람들은 특히 생생한 감각적 경험을 중요시하는데, 감각적 경험은 반복적으로 실천할 경우 강도가 점차 약화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믿음은 어느 특정 체계나 제도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헌신할 수 없다. 영적 믿음은 경험을 중시하는 반면 제도화를 배격하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과 달리 어떤 특정한 영적 믿음도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믿음 체계로 자리잡기 힘들다.

영적 믿음이 종교적 사유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무엇보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영적 믿음의 대상은 자아의 '밖'이 아니라 '안'을 향

한다. 하우트만과 오퍼스(Houtman and Aupers, 2007: 306-308)는 영적 믿음은 “성스러운 것에 내재적으로 연결되는 낭만적인 자아”를 기초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 믿음은 각 개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스러운 힘의 존재를 믿으며, 각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내재적인 힘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전통 종교는 외재적인 힘에 초점을 맞춘다. 기독교에서 진리는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고 하며 신성은 ‘내재적’(immanent)인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transcendent)인 존재라고 규정한다. 기독교에서 구원이나 초월은 개인의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밖에 있는 절대자의 권위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다. 반면 영적 믿음은 진리는 각자의 안에 있으며 자신의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직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영적 믿음은 외적인 세계의 가치를 부정하는 대신 개인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절대적인 진리 혹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Tucker, 2002). 이는 불교에서와 같이 절대적 진리를 깨닫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적 믿음 체계에서 깨달음이란 내적으로 신비한 감정과 체험 그 자체를 의미한다.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인정하던 혹은 부정하던 영적 믿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통제하는 주체가 자신의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Heelas and Woodward, 2005: 22).

영적 믿음에서 모든 전통적인 것은 탈피해야 할 굴레로 인식되며, 개개인의 신성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추구할 것을 지시한다. 개인은 종교적 전통과 제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므로 지극히 자유스러운 한편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는 자신의 안에서 찾아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안는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 각자의 책임에 맡겨지고 전통과 제도에 의지하지 않는 순수히 사적인 작업이 되면서 영적 믿음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 서로 공주관적(intersubjective)으로 합의되고 전승되어온 틀을 배격하는 태도는 자칫 의미의 진공 상태에 빠지거나 혹은 피상적인 유행에 휩쓸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Devie, et al., 2003).

영적 믿음은 기독교와 같이 오랫동안 이론적 제도적 기반을 다져온 믿음의 체계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여러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임의로 조금씩 취사선택한 절충적인 믿음일 가능성이 높다(Aupers and Houtman, 2006). 개인의 선

호에 따라 얼마든지 취사선택이 가능하므로 믿음의 체계는 고유의 전통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 영적 믿음은 추종자들의 지속적인 헌신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독교 교회와 같은 거대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 대신 군소 종교적 사업가들이 난립하면서 단기적으로 머무르는 추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존재하며, 그들 간에 체계적인 연계도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

기독교와 같은 전통 종교가 사회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영적 믿음은 개인의 사적인 종교적 관심을 넘어서서 다른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영적 믿음은 세속화의 중간 단계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통 종교가 지배하던 과거에 비해 개인의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이 국지적으로만 작용하며 사람들을 묶어주기보다는 각자의 관심사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종교가 사회제도로 군림하고 있었을 때, 종교는 사회의 규범과 의미체계의 밑바탕을 제공하며 보이지 않는 체제 유지기능을 담당하였다.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스(Talcot Parsons)는 종교를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을 유지시키는 기능(latent pattern maintenance)을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사회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반면 영적 믿음은 사적인 성격의 것이므로 사회의 질서나 규범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지엽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상호작용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의 뒷받침을 받지 않는 사적인 종교 행위는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려우며 삶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므로 삶의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물다 사멸할 위험성도 있다(Hoellinger, 2004).

IV. ‘영적 믿음’의 대상과 내용

영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성한 것(the sacred)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세상은 전적으로 합리적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경험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초월적인 것도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인(secular) 사람과는 구분된다. 그렇다면 ‘영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믿으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까?

영적 믿음의 대상과 내용 및 믿음의 방식은 극도로 다양하다. 이는 종교적 믿음이 제도의 틀에 입각한 믿음이므로 몇 개의 주요 종교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내용과 형식을 빌려와서 각자의 구미에 맞게 새로이 조합을 하는 것이 영적 믿음이므로 믿음의 내용과 형식을 몇 개로 분류하기 어렵다. 유사한 명칭을 가진 믿음의 경우에도 믿음의 실천자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제각각이며 이를 통일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흔히 뉴에이지 운동이라 통칭되는 비기독교 계통의 영적 믿음은 통일된 조직을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교리와 의식의 일관성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극도의 다양성을 표출한다.

영적 믿음이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보이지만 종교적 믿음과 비교할 때 이들은 분명히 다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한다. 플레이와 키르비스에 따르면 비기독교 계통의 영적 믿음의 주요 내용은 '내적인 영적 자아'(inner spiritual self)를 깨달음, 영적인 에너지로 우주가 통일되어 있음, 영적인 자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임박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Flere and Kirbis, 2007: 179). 또한 영적 믿음은 '지금 이곳'에 대한 믿음, 개인 각자가 획득할 수 있는 지혜, 과거의 전통과 유산을 배격함, 등에서 종교적 믿음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Woodhead and Heelas, 2000: 342).

학자들은 영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믿음의 내용과 형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였다(Zinnbauer, et al., 1999; Hill, et al., 2000; Schlehofer, et al., 2008). 첫째로, 영적 믿음은 종교적 믿음과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종교적 믿음과 영적 믿음 모두 성스러운 것(the sacred)을 믿음의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종교적 믿음에서 신의 개념(theistic concept)은 필수적이거나 영적 믿음에서는 대체로 신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서구의 종교는 대부분이 신, 예수, 창조주, 전지전능한 주재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신성을 믿음의 핵심으로(theism) 한다. 반면 영적 믿음은 초월적 실재(transcendental reality), 존재의 본연(grounding of being), 자연(nature), 자기 자신(inner-self), 감정(emotions) 등을 믿음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데, 이는 절대자나 인격신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성스러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성스럽다고 보거나 혹은 아예 성스러운 것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지 않기도 한다.

둘째로, 영적 믿음은 종교적 믿음과는 추구하는 목표에 차이가 있다. 영적 믿음은 성스러운 것에 전적으로 몰입하는 반면 종교적 믿음은 영적 믿음보다 성스러움 이외의 것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추구한다. 영적 믿음이나 종교적 믿음 모두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행위는 절대자/초자연력/가치를 개인적으로 믿음, 성스러운 것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해함, 성스러운 것과 관계를 설정하고 합일을 경험함, 성스러운 것의 계획이나 원칙을 따라서 실천함, 삶의 의미를 발견함, 등을 포함한다. 반면 종교적 믿음에서 추구하는 성스러움 이외의 것에는 안전, 마음의 평화, 만족, 자기 발전, 건강, 일상적 문제 해결, 자존감 획득, 타인과의 친밀함과 친교, 사회적 소속감, 정치적인 가치 추구 등과 같이 교회 조직 활동에서 흔히 함께 수반하는 것이 포함된다. 반면 영적 믿음은 개인적으로 믿음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성 종교에서와 같이 조직 활동을 통해 얻는 것보다는 믿음의 행위 자체에 집중한다.

셋째로, 영적 믿음은 종교적 믿음과는 달리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종교적 믿음이나 영적 믿음 모두 조직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실천(예, 기도, 명상, 성경 읽기, 찬송)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 믿음은 영적 믿음보다 조직에 기반을 둔 실천(예, 교회 예배, 침례나 영성체 의식, 고해성사, 혼인식 등)과 실천 규범(예, 정형화된 의식 규범, 지켜야 하는 계율)에 더 많이 의존한다. 영적 믿음의 경우에도 특정 믿음의 실천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는 보조자이며 그 믿음을 같이 실천하는 사람일 뿐 기성 종교의 사제와 같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지도자로서 제도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즉, 일반 신도와 구별된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다. 실천자에 따라 다양한 실천 방식을 사용하는데 자신이 추종하는 실천 방식이나 의식과 규범을 신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제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영적 믿음에서는 조직에 기반을 둔 실천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대체로 실천자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여 영적 믿음이 실천되고 있으므로 막스 베버가 지적한 카리스마의 일상화(routinization of charisma)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특성을 보인다. 즉 사제, 의식, 규범 등의 정

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천자의 뜻과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임의적 성격에 머무르고 있다(Roberts, 2004: 133-155).

V. 영적 믿음 추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태도

영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사회인구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까? 영적 믿음 추종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Roof, 1999; Hoellinger, 2004; Heelas and Weedhead, 2005; Wuthnow, 2007).

영적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흑인보다는 백인이며, 상류층 혹은 하류층이기보다는 중류층이며, 남성이기보다는 여성일 확률이 높다. 미혼이거나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30에서 50세 사이의 연령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까운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나 형제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중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영위하기보다는 평등하며 개방된 동반자 관계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영적 믿음에 헌신하는 엘리트 실천가들 중 믿음 활동이 생계의 주요 원천이 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다른 수단을 통해 금전적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한다. 영적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교사나 간호사와 같이 남을 돕는 전문직에서 일한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한 곳에 정주하기보다 직장과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닌다.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특이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들의 삶은 주위와 연관이 없고 매우 유동적이며, 평등주의 원칙을 극단적으로 추구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혼자이며, 남과 함께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평등한 지위에서 단기적으로 접촉한다. 남에게 권위를 부여하거나 남 위에 권위적으로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삶의 양식은 교외에 거주하는 중류층에게 설득력이 있다. 이는 전통적 사회제도나 권위체계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홀링거(Hoellinger, 2004)의 연구에 따르면 영적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종교인과 비교하여 사회적 태도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이들은 비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직업적 성공, 물질적인 소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자아실현이나 자기 주체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의 성취를 인생의 목표로 설정한다. 둘째, 이들은 사회적 위계나 권위를 거부한다. 주류의 의견을 좇아서 사회적으로 동조하는 성향을 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기술적 및 경제적 진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기술적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며 더 나은 사회라고 보지 않는다. 넷째, 정치적 비판 활동이나 풀뿌리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수동적으로 동조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치는 것을 선호한다. 다섯째, 환경주의나 시민주의적인 정치집단이나 강령을 지지한다. 환경 친화적인 삶을 지향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한다. 여섯째, 성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주류 사회에서는 일탈로 규정하는 행위 예컨대 마약의 복용 등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일곱째, 남녀의 동등성을 지지하며 성역할 분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영적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등한 관계를 선호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거부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높은 권위를 가진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자신이 불평등한 관계 속에 놓이고 싶지 않은 이들의 태도에서 비롯한다. 이들은 진리와 신성한 것의 원천이 자신 내부에 있다고 믿고 있음으로 외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의 믿음에 따르면 모두는 각자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존재이므로 서로 평등한 관계를 옹호하게 된다. 영적 믿음에서 신성한 것은 인간에 대해 명령하거나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다. 평등을 지향하는 이들의 성향은 영적 믿음에 ‘죄’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데서도 드러난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죄는 신과 인간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영적 믿음에서는 신성한 것을 깨닫는 긍정적인 개념만이 존재할 뿐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용서를 받는 부정적인 개념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종교적 믿음이 신중심의 세계관을 기초로 함에 비해, 영

적 믿음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있다(Houtman and Aupers, 2007).

한편 윌링거의 연구에 따르면 영적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Hoellinger, 2004: 305-307). 앞에서 서술한 성향은 자아완성을 목적으로 영적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반면 영적 믿음 중 점성술, 타로 카드, 혼령 소통 등과 같이 밀교적 지식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아완성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인다. 이들은 신비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성격과 운명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며 신비한 힘을 조작하여 자신의 삶에서 부닥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밀교적 지식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성스러운 것의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절제된 수행을 하지 않으며 대신 권위적인 관계 속에 자신을 의탁하는 수동적인 실천에 치중한다.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태도는 일관되지 않으며 때로는 모순되거나 혹은 전혀 의견이 없다. 자아완성을 목표로 하는 영적 믿음의 추종자들이 비교적 안정된 성격과 강한 도덕감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밀교적 지식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유아적이며 쾌락주의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영적 믿음 중에서도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찾아 항상 떠돌아다니는 특성을 보인다.

VI. '영적 믿음'의 불안정성

영적 믿음은 종교적 믿음과 비교하여 매우 불안정하다. 영적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은 수시로 믿음의 내용과 형식을 바꾸거나 중단하며, 영적 믿음은 세대 간에 전승되는 전통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영적 믿음의 불안정성은 앞에서 논의한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만들어내는 사회환경적 불안정성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다음에서는 믿음의 제도화, 믿음의 사회적 영향, 믿음의 내적 일관성, 믿음의 강도, 믿음의 획득과 전승, 등의 측면에서 영적 믿음의 불안정성을 분석한다.

1) 믿음의 제도화의 거부

영적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 제도적 틀에 따른 것에 대한 반발로 생성되었다. 영적 믿음은 의도적으로 제도화를 거부한다. 믿음의 내용이 권위를 갖춘 경전(canon)으로 제도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믿음의 방식에서 주관적인 취사선택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므로 권위적인 의식이나 의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내용과 정형화된 형식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와 내적인 감정에 집중하기를 요구한다.

믿음이 제도화되면 믿음과 행위의 내용과 방식이 정형화되고, 믿음과 관련된 행위를 주관하는 전문인과 전문 기관이 존재하고, 이러한 전문인과 기관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절차와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믿음이 제도화되었을 때 믿음의 체계가 특정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지 않으며,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감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

기존의 종교적 믿음과 달리 영적 믿음은 이러한 제도화된 형태를 띠지 못한다. 영적 믿음은 개인의 카리스마에 크게 좌우되며, 믿음의 내용이나 형식이 매우 유동적이며, 특정한 기관이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러한 기관과 믿음 체계의 장악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오랜 시간을 걸쳐 안정되게 전승되기 어려우며, 심지어는 믿음의 추종자 개인에게도 연속성이 없다. 엘리트 실천자나 추종자들은 동일한 믿음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수시로 내용과 형식을 바꾸며 아예 다른 믿음 체계로 갈아타는 일도 흔히 일어난다. 예컨대 1970년대 크게 유행했던 ‘초월명상’(Transcendental Meditation)의 경우 엘리트 실천자가 죽거나 다른 이유로 카리스마를 상실했을 때 믿음의 체계가 후대에 전승되기보다는 실천자와 함께 사멸하였다.

2) 믿음의 사회적 영향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원시 부족의 종교현상을 연구하면서 종교적 믿음의 대상은 사회 집단 그 자체라고 분석하였다(Durkheim, 1995). 그의 이론에 따르면 종교란 사회집단을 상징화한 대상을 믿음의 중심

으로 하고 정기적인 집단 의례를 통해 집단의식을 주기적으로 환기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에밀 뒤르켐의 기능주의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칼 마르크스의 갈등론에서도 종교란 사회의 지배계층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Roberts, 2004: 45~68). 종교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종교가 종교 기관이나 개인적인 종교적 실천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 제도와 삶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영적 믿음은 제도적 틀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출발하며, 믿음의 내용이나 실천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한다. 따라서 영적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내용이나 실천이 종교의 고유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와 삶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부한다. 영적 믿음은 주관적인 수행이므로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집단적인 연대를 통해 사회 세력화를 도모하지 않으며, 주관적인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피한다(Hoellinger, 2004).

제도화되지 않은 행위는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어려우며 다른 제도와 연계되지 못하므로 제도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개인의 삶은 다양한 활동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엮이며 살아가는 것인데,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국한된 믿음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관계 속에서 미미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각 개인의 삶에서는 영적 믿음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여도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된 사례로 끝나게 된다. 특정 개인의 주관적 관심사에 국한될 때 사회적 파급효과는 미약하며 다음 세대로 전승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3) 내적 일관성의 결여

영적 믿음은 믿음의 내적 일관성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종교적 믿음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전문가들이 믿음의 논리적 일관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 믿음의 내적인 일관성을 높여왔다. 반면 영적 믿음

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믿음의 내용이나 방법에서 내적으로 일관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실천가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기 때문이거나, 신비적 요소를 강조하기 때문이거나, 직관과 감각을 중시하는 반지성주의적 경향 때문이거나, 성스러움을 이해하려는 인지적 접근보다는 느끼고 실천하는 실천적 접근을 선호하기 때문이거나 등등 이유는 다양하다.

믿음의 내적 일관성을 높이려면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엘리트 실천가의 노력이 필요한데, 영적 믿음의 실천가들은 추종자들이 성스러운 것을 직관적으로 경험하도록 돕는데 노력을 경주한다. 영적 믿음의 추종자들은 믿음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남에게 이를 설득하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남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합리적인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 실천가의 도움으로 영적 믿음을 처음에는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가 들 때 이를 억누르고 지속할 일관된 근거나 절차 규범을 제공받지 못한다. 자신이 추종하는 영적 믿음에 회의가 들 때 추종자들은 자신의 취향대로 믿음의 내용과 형식을 바꾸거나 혹은 중단하고 다른 믿음으로 갈아타기 쉽다. 자신의 믿음에 어느 부분이 미흡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믿음이 깊어지는 것인지,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일관된 체계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영적 믿음의 추종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무엇이 그릇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왜 그러한지에 관한 지침을 분명히 제공하지 못하는 믿음은 추종자를 오래 붙들어 두지 못한다.

4) 믿음의 강도가 약함

종교적 믿음은 다차원성을 지닌다. 믿음의 차원을 인지적, 행위적, 정서적, 차원으로 구분하였을 때, 각각의 차원에서 믿음의 강도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Hill and Hood, 1999). 영적 믿음에 이러한 다차원성을 적용하였을 때, 추종자들은 대체로 종교적 믿음의 경우보다 낮은 수준의 헌신을 보인다(Roof, 1999; Wuthnow, 2001). 이는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영적 믿음 자체가 지속적인 헌신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첫째, 인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영적 믿음은 내용 자체가 내적 일관성과 체

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깊이 있는 이해를 어렵게 한다. 직관적인 체험을 우선시 하는 믿음의 방식 때문에 인지적인 이해는 경시되거나 혹은 설사 시도한다고 해도 곧 한계에 부딪힌다. 둘째 행위적 차원에서 볼 때 오랜 수련과 집중을 통해 영적 믿음에 헌신하는 사람은 소수 엘리트 실천가에 국한될 뿐 영적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믿음의 행위는 간헐적이며 피상적이다. 이는 영적 믿음의 실천이 개인적으로 행해지는데 원인이 있다. 영적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순전히 개인의 의지에 따라 실천되며 설사 함께 한다고 하여도 각자의 믿음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일상의 다양한 요구 속에서 영적 믿음의 실천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제도적인 규칙성이나 제도적인 압력이 없이 순전히 개인에게 맡겨진 믿음의 실천은 간헐적이 될 수밖에 없다. 제도적 지원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행위가 개인의 주관적인 의지에 의존하므로 피상적인 경험이 반복되기 쉽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헌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셋째, 정서적 차원에서 볼 때 영적 믿음이 추구하는 감정적 헌신은 제한된 범위에 머무른다. 영적 믿음의 엘리트 실천가들은 영적 믿음에서 깊은 감정적 헌신을 경험하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적 헌신이 일반 추종자들에게 얼마나 공유되는가이다. 랜달 콜린스의 집단행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함께 모여서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때 상호간 감정적인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감정적인 헌신이 높아진다(Collins, 2005). 종교 의식에 참여하여 의례를 함께 할 때가 독방에서 홀로 의례를 할 때보다 신성한 것에 대한 경외의 감정이 더 고조된다. 영적 믿음에서도 함께 모여 종교적 의례를 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독립적인 수행을 기본으로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독립적 수행에서 감정적인 헌신의 정도는 깊지 않다. 또한 영적 체험은 사적인 경험이므로 자신의 믿음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고 도움을 얻기도 용이치 않다. 결과 영적 믿음은 종교적 믿음보다 감정적인 헌신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다.

5) 믿음의 획득과 전승의 불연속

종교적 믿음을 획득하는 대표적인 경로는 어릴 때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종교 생활을 따라 하면서 물려받는 것이다(Wuthnow, 2007). 성인이 된 이후에 중요한 인생의 위기에 접하여 혹은 가까운 사람의 설득으로 새로이 종교적 믿음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흔치 않다. 어릴 때 종교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 성인기에 일시적으로 종교적 믿음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중노년기에 다시 종교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어릴 때 비종교적인 집안에서 성장한 경우 성인기에 새로이 종교적 믿음을 획득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성인기에 새로이 획득한 믿음은 중노년기까지 계속되기보다 일시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Roberts, 2004: 107-110).

반면 영적 믿음은 거의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기보다는 성인기에 자신이 선택하여 믿음을 획득한다(Roof, 1999). 영적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은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비종교적 집안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 성인기에 새로이 선택한 믿음은 중도에 그만두거나 다른 믿음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

영적 믿음은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않는다. 영적 믿음을 추종하는 부모의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전승하는 경우는 드물다. 종교적 믿음과는 달리 영적 믿음은 정형화된 의례와 규칙적인 실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에게 믿음과 연관된 삶의 리듬을 심어주지 못한다. 종교적 믿음의 경우 주일 학교, 주일 예배, 소집단 모임, 기도 등과 같이 규칙적 생활 리듬을 통해 믿음이 일상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자녀들에게 전승되는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영적 믿음을 행하는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활동을 규칙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은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내면화하지 못한다.

VII. 결론: ‘영적 믿음’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우트만과 오퍼스는 서구사회에서 과거 종교적 믿음이 차지하던 자리를

1980년대 이후에 '기독교 이후의 영적 믿음'(Post-Christian Spirituality)이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Houtman and Aupers, 2007: 305-306). 영적 믿음은 종교적 전통의 장악력이 약화되는 혹은 전통으로부터 탈피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개인주의화 현상과 맞물려 전개된다. 그들은 사람들이 근래로 오면서 종교로부터 멀어지거나 성스러운 것(the sacred)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으로부터 영적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과 방법이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점차로 믿음의 대상이 초월적인 성격을 상실하면서 성스러운 것은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것에서 개인의 자아 깊숙이에 내재한 직관적으로 포착 가능한 것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영적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나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의 종교적 전통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문제는 영적 믿음이 확산되는 근래의 추세가 과연 앞으로 전통적인 종교적 믿음을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성스러운 것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방향 즉 세속화되는 쪽으로 전개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학자들에 따라 영적 믿음이 확대되는 경향의 미래에 대하여 예측이 엇갈린다. 스티브 브루스(Steve Bruce)를 선두로 세속화 명제를 추종하는 학자들은 영적 믿음은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할 수 없으며 세속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간단계로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Bruce, 2002; Bainbridge, 2004). 완전히 개인적이면서 주관적인 행위인 영적 믿음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Devie, et al., 2003; Heelas and Woodward, 2005; Marler and Hadaway, 2002) 전통적인 종교가 차지하던 자리를 대체하여 다양한 형태의 믿음이 출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미와 정체성의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전통적 종교에 의지할 것이며 또 다른 부류는 영적 믿음, 특히 비기독교 계통의 영적 믿음에 회귀할 것이다. 반면 의미와 정체성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세속주의자가 될 것이다. 영적 믿음은 종교적 믿음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면서 그 자체의 조직과 기능을 갖추고 확산되어 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영적 믿음이 어느 정도 세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로, 영적 믿음의 실천이 완전히 개인적이며 주관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시한다(Heelas, 2006). 비록 전통 종교와 같은 체제와 제도를 갖추

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트 실천가들 사이에 느슨한 조직망이 존재하며, 추종자들에게 함의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론이 있으며, 엘리트 실천가와 일반 신자간에 지속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종교의 기준으로 영적 믿음의 내용과 조직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영적 믿음의 추종자들은 그들 나름의 내용과 방식을 개발하였으며, 그들에게는 이러한 내용과 방식이 보다 더 적합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통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뉴에이지로 대표되는 비기독교 계통의 영적 믿음은 개인주의와 가치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서구의 현대 문화와 선택적으로 잘 정합되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Redden, 2005). 영적 믿음은 다양한 믿음이 서로 경쟁적으로 고객을 향해 다가가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소비자로서 개인은 자신의 취향에 따른 선택과 책임이 가장 우선시된다. 격심한 시장 경쟁에 노출된 뉴 에이지 믿음은 전통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항시 새로운 내용과 방식을 개발해냄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며, 이는 끝없는 절충과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다. 특정한 영적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지속성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로이 정의되고 새로이 변형하는 역동성이 바로 뉴에이지 믿음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기독교 계통의 영적 믿음을 전통 종교의 입장에서 재단하여 개별 믿음의 안정성이나 사회적 중요성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전통적인 권위에 입각한 정통적인 이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반면 개인적 상대주의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에서 영적 믿음은 종교적 믿음보다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종교적 서비스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효용을 평가할 때 영적 믿음은 계속된 혁신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종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요컨대 미국 사회에서 영적 믿음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분명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지는 않다. 1960년대 뉴에이지 운동의 전성기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영적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적 믿음 자체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영적 믿음이 사멸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까지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에서 영적 믿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고 미국도 그러한 길을 가리라는 주장도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Stark, et al., 2005). 일부 학자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영적 믿음을 탐색하는 것을 종교적 믿음을 갖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Wuthnow, 2007). 삶의 의미의 문제에 부닥쳐 이런 저런 다양한 믿음을 탐색하다가 성장기에 친숙하였지만 이후 잃어버린 종교적 믿음의 관행으로 회귀하는 사람이 많으리라는 예측이다. 한편 영적 믿음을 추종하다가 중단하는 경우 종교적 믿음으로 회귀하기보다는 신성한 것(the sacred)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들어, 영적 믿음의 미래는 세속주의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Bainbridge, 2004). 즉 종교적 믿음이 세속화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중간에 나타나는 과도기의 현상으로 영적 믿음이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사회의 변화에서 분명한 것은 현대성은 개인주의를 조장하며 결과 종교를 포함하여 전통적 제도의 힘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 전통이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제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상황이 앞으로 다시 출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종교적 믿음이 계속된다고 해도 사회 제도와 삶에 대한 장악력은 전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며, 이렇게 제도의 장악력이 떨어진 자리에 개인주의적인 성격의 영적 믿음이 투입해 오는 경향이 앞으로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많은 미국인이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초자연력 혹은 자기 자신과 같이 비전통적인 개념의 신성한 것도 동시에 믿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와중에 신성한 것에 대한 믿음을 전혀 가지지 않은 세속주의자도 증가할 것이다. 실제 최근의 조사에서 세속주의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한다(Pew Forum, 2010).

인용문헌

- Aupers, Stef and Dick Houtman. "Beyond the Spiritual Supermarket: the Social and Public Significance of New Age Spirituality."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21(2) (2006): 201-22.
- Adler, J., A. Undewood, et al. "In search of the Spiritual." *Newsweek*. August 146 (2005): 46-64.
- Bainbrige, William Sims. "After the New Ag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3(3)(2004): 381-94.
- Balmer, Randall.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A Journey into the Evangelical Subculture in America*, 4th ed. New York: Oxford UP, 2006.
- Bellah, Robert, Richard Madsen, William Sullivan, Ann Swidler, Steve Tipton.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Blow, M. Charles. "Spirit Quest." *New York Times*. February 20. 2010.
- Bruce, Steve. *God is Dead, Secularization in the West*. London: Blackwell. 2002.
- Collins, Randall. *Interaction Ritual Chains*. Princeton UP, 2005.
- Davie, Grace, Paul Heelas, and Linda Woodhead. *Predicting Religion: Christian, Secular and Alternative Futures*. Burlington, VT: Ashgate, 2003.
- Durkheim, Emile.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 1995.
- Flere, Sergej and Andrej Kirbis. "New Age, Religiosity, and Traditionalism: a 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8(1) (2007): 161-184.
- Hoellinger, Franz. "Does the Counter-cultural character of New Age persist? Investiga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of New Age

- followers."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19(3) (2004): 289-309.
- Tucker, James. "New Age Religion and the Cult of the Self." *Society*. January/February (2002): 46-51.
- Heelas, Paus. *The New Age Movement: The Celebration of the Self and the Sacralisation of Modernity*. Oxford: Blackwell, 1996.
- Heelas, Paul. "The Infirmary debate: on the viability of New Age Spiritualities of Life." *Journal for Contemporary Religion* 21(2) (2006): 223-40.
- Heelas, Paul and Linda Woodhead. *The Spiritual Revolution, Why religion is giving way to spirituality?* Oxford, UK: Blackwell, 2005.
- Hill, Peter and Ralph Hood. *Measures of Religiosity*. Birmingham: Religious Education P, 1999.
- Hill, Peter C., et al. "Conceptualizing Religion and Spirituality: points of commonality, points of departure."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30(1) (2000): 51-77.
- Houtman, Dick and Stef Aupers. "The Spiritual turn and the decline of tradition: the spread of post-Christian spirituality in 14 Western countries, 1981-2000."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6(3) (2007): 305-20.
- Luckman, Thomas. *Invisible Religion*. New York: Collier MacMillan, 1971.
- Luckman, Thomas. "Privatization of Religion and Morality." *Detraditionalization of Religion*. Ed. Paul Heelas, Scott Lasch, and Paul Morris, Malden, MA: Blackwell, 1996.
- Marler, Penny Long and C. Kirk Hadaway. "'Being Religious' or 'Being Spiritual' in America: a Zero-sum proposi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2) (2002): 289-300.
- Pew Forum on Religion and Public Life. "Religion among the Millennials." *Pew Research Center*. February. 2010.

- Redden, Guy. "The New Age: Towards a Market Model."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20(2) (2005): 231–246.
- Roberts, Keith.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4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son, 2004.
- Roof, Wade Clark. *Spiritual Marketplace, Baby Boomers and the Remaking of American Religion*. Princeton UP, 1999.
- Schlehofer, Michele M., Allen M. Omoto, and Janice R. Adelman. "How do 'Religion' and 'Spirituality' differ? Lay definitions among older adul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7(3) (2008): 411–25.
- Smith, Christian. *American Evangelicalism, Embattled and Thriving*. U of Chicago P, 1998.
- Stark, Rodney, Eva Hamberg and Alan S. Miller. "Exploring spirituality and unchurched religions in America, Sweden, and Japan."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20(1) (2005): 3–23.
- Woodhead, Linda and Paul Heelas. *Religion in Modern Times: An Interpretive Anthology*. Oxford: Blackwell, 2000.
- Wuthnow, Robert. *The Restructuring of American Religion*. Princeton UP, 1988.
- Wuthnow, Robert. "Spirituality and Spiritual Practice." in Richard K. Fenn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ology of Religion*. Oxford, UK: Blackwell, 2001.
- Wuthnow, Robert. *After the Baby Boomers: How twenty-and thirty-somethings are shaping the future of American religion*. Princeton UP, 2007.
- Zinnbauer, Brian, Kenneth I. Pargament and Allie B. Scott. "The Emerging Meanings of Religiosity and Spirituality: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67(6) (1999):889–919.

Abstract

Change in the Configuration of Religiosity in American Society: Focusing on Spirituality

Hyun-Song Lee

A new pattern of religiosity focusing on spirituality has been expanded over the past half century while the influence of Protestant churches has contracted. The new trend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de-traditionalization, individu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religiosity in American society. The expansion of the spiritual faith is systematically analyzed in this paper.

I start by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ligious belief and the spiritual belief. Then I discuss the cause of the expansion of spiritual beliefs, the relationship of the privatization of religiosity and the spiritual belief, the objective and contents of spiritual beliefs, and the socio-demographic traits and social attitudes of the followers. I also review the instability of spiritual belief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points: institutionalization, social influence, internal consistency, strength, and acquisition and transference of belief.

On the basis of such analyses I diagnose the future of religiosity in American society as follows. The modernity of American society encourages individualization, which ensues the weakening of traditional institution including religion. The individualistic faith of spirituality will get its way into the place where the traditional religion loosens its grip. Many Americans are likely to have the non-traditional concepts of the sacred such as supernatural force or inner-self, along with the traditional faith of

the God. Meanwhile the secularists will gain their ground as well.

Key Words: spirituality, religiosity, American society, individualization, secularization.

영적 믿음, 미국 사회, 종교, 개인화, 세속화.

논문접수일: 2010. 11. 9

심사완료일: 2010. 12. 11

게재확정일: 2010. 12. 14

이름: 이현송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주소: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 8번지

이메일: hslee@hufs.ac.kr